

지역 소식통

노시옹 사무국장, 전국 문화재단연합회 이사 선임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 노시옹 사무국장

재단 사무국장이 이번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이사에 선임

노시옹 사무국장은 "기초문화재단이 지역의 미래 지향적인 문화예술 중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청자박물관도예가협 부안청자휴게소 입점협약

국내 대표적인 유류업체인 대보유류에서 운영 중인 서해안고속도로 부안도예가협이 제작한 다양한 부안청자 상품들이 전시장 판매된다.

부안청자박물관은 부안도예가협회(회장 이종창) 및 부안고려청자휴게소(소장 김영곤)와 최근 부안고려청자휴게소에서 부안청자의 우수성 홍보와 청자 상품 판매활성화 등을 위해 입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난 10일 부안고려청자휴게소 개통과 함께 휴게소에서 직접 운영 중인 판매관에 부안청자 상품이 전시·판매돼 부안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도예가협회 등은 그동안 부안청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걸림돌이 됐던 제한적인 소비계층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정읍시, 총 68억8300만원 투입... 성장기 건강한 성장 도울 예정

정읍시가 지역 내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8억8,300만원을 지원한다.

이해는 지난해보다 약 2억2천만원 늘어난 액수다. 지원 대상은 공립유치원을 포함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98개교 1만438명의 학생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무상급식 59억 5,600만원(도비 14억원, 시비 15억 7,800만원, 교육청 29억7,8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5억8,100만원(도비 1억8,600만원, 시비 2억9,000만원, 교육청 1억8,600만원), 시 자체 예산 3억4,6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시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량을 80% 이상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농가로부터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20종과 지역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가공품 68개 품

목을 지역 내 학교에 직접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의 소득증대는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우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에게는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5~11세 소아 코로나 백신 기초접종 사전예약 시작

고창군, 31일부터 접종

고창군 보건당국이 소아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5~11세 기초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돼 오는 31일부터 접종한다고 28일 밝혔다.

접종대상은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는 아이부터 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아이까지 해당되며 1차접종 8주 후에 2차접종을 한다. 사전예약 누리집이나 콜센터(560-8569,8570)를 통해 예약 후 고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소아용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게 되며 보호자나 법정대리인 동반이 필요하다.

18세 이상 기초접종 미접종자와 의

학적 소견으로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차,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고창군은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접종현황은 5만3,044명(95.7%)이 기본접종을 완료했다. 3차접종은 4만 259,99명(80.1%)이 마쳐 전국 기준 기본접종 86.6%, 3차 63.3%보다 월등히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3차 접종률을 보면 60세 이상 95.7%, 30대 87.7%, 50대 87.2%, 40대 81.5%, 20대 74.2% 순으로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3차 접

종률은 23일 기준 70.6%로 전국 58.8% 보다 높은 접종률로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의 접종을 이끌어 냈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4차 접종도 65.2%로 전국 28.8%보다 높은 접종률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 유병수 보건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에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며 "특히 소아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 접종이 중요하므로 적극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현혈봉사로 정읍시장 출마선언

김민영 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전 정읍산림조합장)는 28일 정읍역 광장에서 가족·시민·지지자 등 100여명과 함께 '현혈 봉사'를 하며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혈액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현혈에 동참하게 됐다"며 "정읍을 전복서남편 중심도시로 다시 세우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정읍시도 이제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때"라며 "부실경영에 허덕이던 정읍산림조합을 전국 1등 조합으로 탈바꿈시켰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부자가 되는 도시로 만들



겠다는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정읍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축산업의 쇠퇴, 산업경쟁력 약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소상공인들의 고통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들고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의 발전 공약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검증하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핵심공약으로 △농생명 산업벨트 구축(제2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정읍역 배후단지(에미스(MICE)센터 조성 △연지시장 인근 생활문화 복합단지 조성 △내장산 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정읍형 기본소득 도입 △국가정원과 수목원 유치 △철도복합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다.

김민영 예비후보는 "한때 27만명이던 정읍시가 현재 10만명선 미저 위험반으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려왔다"며 "100년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이 절실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10시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정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시민참여 열린시정' 목표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정책발표회 개최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10시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정에 대한 자신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이날 밝힌 정책은 '시민 중심의 문화·생명 공유도시 정읍'을 비전으로 '풍요로운 민생경제', '품격있는 교육문화', '함께행복 나눔복지', '시민참여 열린시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 경제·일자리 등 8대 추진방향, 77개 공약 등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통해 정읍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한 때 서남권의 대표도시였던 정읍이 최근 활력을 잃고 발전은 정체됐다"라며 "경쟁력 없는 도시로 퇴보하고 있는 정읍이 앞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농업·농촌 분야 공약으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고 지역농협과 상생·협력하는 정책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올려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했다.

또 농생명·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공익형 사업단을 만들어 발생하는 수익금을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는 등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품격 높이는 문화·체육·관광도시 기반 마련"은 "지역문화 예술인에 대한 창작 활동을 돕고 공연시설을 늘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의 취미와 특기를 살리는 생활문화와 생활체육도 활성화하는 공약을 통해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고창군은 청명(4월4일), 한식(4월5일)을 전후해 성묘, 상춘객 등산객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것에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가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강수량이 적어 매우 건조한 데다 청명·식목일과 한식이 주말과 이어져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화가 우려된다.

고창군은 청명과 한식이 있는 전후 주말(2~3일, 9~10일)에 공무원, 산불진화대, 감시원 등 총 240여명을 14개

읍·면 입산통제구역과 묘지주변, 산림연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예상지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책임 구역별로 산불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동묘지, 묘지 이장지 등 산불 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소각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을방송과 차량 엠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청명·한식을 전후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